

# 제주도 중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

김승곤<sup>1)</sup>

- 목 차 -

ABSTRACT

- I. 서론
- II. 연구방법
  - 1. 표집
  - 2. 조사도구
  - 3. 조사절차
  - 4. 자료처리

III. 결과 및 해석

- 1. 여가의식
- 2. 여가활동
- 3. 여가시설
- 4.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n Investigation on Leisure Activitie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Do

Kim, Seung-K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participation for leisure activities and subjective leisure experience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Do.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as comprised of responses anonymous, self-report questionnaires administered during 1986 to total sample of 468 male students and 445 female students from six selected junior high schools. The independent samples Chi-square, Cramer's V method of association,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employed as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bout 23% of respondents responded leisure take relaxation and get away from tensions, 35% viewed stress dissolution of body and mind to be most necessity for leisure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involvement. Second, about 32% of respondents was dissatisfied with their leisure life, almost 40% ranked facilities and space for leisure activities as the most important reason. Third, about 25% of respondents evaluated leisure life of youth as unsound, male students ranked plenty of unsound facilities and place as the most important reason, female students stressed lack of measures for proper juvenile guidences. Forth, the favorite leisure activites involved in leisure time presently are basketball, bicycle, soccer, badminton. At one's desire, favorite leisure activities in future are basketball, soccer, taekwondo, walk. Fifth, the best use of leisure facilities presently are playground, electronic game room, library, basketball court. The students usually perceived insufficient facilities as basketball court, gymnasium, skiing ground, swimming pool. Sixth, male student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isure flow experience, leisure confidence, leisure controllability than did female student. The sport involvement group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isure confidence than did hobby & creative activity group and amusement group.

## 1. 서 론

최근 여가의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성인과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생애에 걸쳐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부여된 자유시간속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승곤·양명환).

다양한 여가활동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적활동으로부터 학습하지 못하는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을 가능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능동적 여가활동, 특히 운동 및 스포츠 활동은 성장기 청소년의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전한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일탈 또는 비행 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성격 및 태도 형성의 기능과 바람직한 사회화의 가치를 지닌 여가활동을 보급 장려하여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욕구나 고민을 합법적이고 안전한 통로를 통하여 정화 또는 분출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김승곤, 1992).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 향유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경우가 많고, 여가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지식의 부족은 확보된 여가시간마저도 무의미하게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세련된 여가문화, 스포츠·놀이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도 절대량이 부족하고 지역편중 현상마저 빚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가활동 부문의 문제점들을 과학적이고 비판적으로 진단 처방할 수 있도록 객관적, 주관적 측면에서의 여가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여가문화 창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여가욕구를 기술적 수준에서 파악하는 과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전국적인 표집에 의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들과 본 조사연구의 차이점은 제주도라는 특정지역의 특정 연령층(중학생)의 여가욕구, 경험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여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중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와 주관적 여가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다단계군집표집법(multi-stage 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집하였으며, 모집단은 제주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모집단을 기초로하여 제주 시내 중학교중 난수표를 이용하여 남녀 3개중학교씩 6개 중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학교 선정후 다시 2학년 학생중 특정 학급을 대상으로 남녀학생 913명을 표집하였다. 표집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468명으로 51.3%, 여학생이 445명으로 48.7%를 차지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체육부(1988)의 국민 여가활동 참여 실태 조사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을 기초로하여 본 논문에서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지 문항을 작성한 다음 사전조사를 거쳐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표-1〉 질문지의 구성지표와 문항내용

구성지표	문항내용	문항수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별,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특성	4
여가의식	여가의 정의, 여가의 필요성,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불만족 이유, 여가활동의 건강 기여도, 여가 건전도, 불건전 이유, 건전 여가의식 제고 방안	8
여가활동	평상시 참여 여가활동, 장래의 희망 여가활동, 여가시간(평일, 주말)	4
여가시설	최근 사용 여가시설, 부족 여가시설, 시설 사용의 불편	3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	여가심취도	3
	여가자신감	3
	여가통제력	3

〈표-1〉에 제시된 바와같이 질문지는 배경정보 4개 문항, 여가의식에 관한 8개문항, 여가활

동과 관련된 4문항, 여가시설과 관련된 3문항 그리고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을 측정하는 9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특성에 따라 명목척도, 서열척도 및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 3.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중학생의 여가참여활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도 청소년 여가실태 조사"질문지를 피험자에게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입하도록 지시하고 완성된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표집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의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 4. 자료처리

설문지 각 항목에 대한 분석방법은 우선 항목별로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여 표본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척도의 특성에 따라 분할표의 카이제곱 검정,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여가의식

#### 1) 여가의 정의

성별에 따라서 중학생들의 여가의 개념을 분석한 결과가 <표-2>이다. <표-2>에서  $\chi^2$ 값과 Cramer의 우발성 계수를 비교해 보면,  $\chi^2$ 값은 16.82로서 그 p값이 .0048이기에 유의수준  $\alpha = .01$ 에서 두 변수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한편 두 변수가 상호독립적일 경우의 Cramer's V는 0에 가까운 값이 된다. 이 경우에 V의 값은 .14로서 0보다 큰 값을 갖기에 두 변수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여가

<표-2> 여가의 정의

(단위 : 백분율)

구 분	기분전환	휴 식	창조적활동	자기개발	자유시간	가족과지냄	계
남학생	83(17.8)	101(21.7)	111(23.9)	81(17.4)	72(15.5)	17(3.7)	465(100.0)
여학생	68(15.4)	99(22.4)	66(15.0)	108(24.5)	81(18.4)	19(4.3)	441(100.0)
계	151(16.7)	200(22.1)	177(19.5)	189(20.9)	153(16.8)	36(4.0)	906(100.0)

(무응답=7)  $\chi^2 = 16.82$ , D.F. = 5,  $p < .0048$ , Cramer's V = .14

에 대한 정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전체적으로 볼 때, 여가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나는 질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20.9%), “예술, 스포츠 등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19.5%), “자기마음대로 시간을 보는 것”(16.8%), “기본전환을 갖는 것”(16.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여가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여가를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2) 여가의 필요성

성별에 따라서 여가의 필요성을 분할표 검정한 결과가 <표-3>이다. <표-3>에 제시된  $\chi^2$ 값과 Cramer의 우발성 계수를 비교해 보면,  $\chi^2$ 값은 9.86으로서 그 p값이 .079이기에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두 변수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22.2%), “학업능률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22.1%), “새롭고 폭넓은 경험이나 지식을 얻기 위하여”(17.8%) 등의 순으로 평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시간 향유를 필요한 이유로 높게 평가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폭넓은 경험 지식과 학업능률 향상을 위해 여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3> 여가의 필요성

구 분	스트레스 해소	학업능률 향상	폭넓은 경험·지식	복잡한 현실 도피	즐거움 추구	자기시간 향유	계
남학생	172(37.1)	29( 6.3)	72(15.5)	54(11.6)	31( 6.7)	106(22.8)	464(100.0)
여학생	146(33.1)	42( 9.5)	89(20.2)	51(11.6)	18( 4.1)	95(21.5)	441(100.0)
계	318(35.1)	71( 7.8)	161(17.8)	105(11.6)	49( 5.4)	201(22.2)	905(100.0)

(무응답=8)  $\chi^2 = 9.86, D.F. = 5, p > .0793, Cramer's V = .10$

### 3)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4>는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표-4>에 제시된 바와같이 유의수준  $\alpha = .001$ 에서 성별과 여가만족도 두 변인은 상호독립적이지 아니며,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녀에 따라 여가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25.5%)은 여학생(14.4%)보다 여가활동을 만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학생(28.5%)은 불만수준이 남학생(18.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31.2%의 학생이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의 교육 및 사회가 남녀 공학 및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여가활동에서는 여학생이나 여성들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4〉 여가활동의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남학생	27( 5.8)	118(25.5)	187(40.5)	87(18.8)	43( 9.3)	462(100.0)
여학생	16( 3.7)	63(14.4)	209(47.7)	125(28.5)	25( 5.7)	438(100.0)
계	43( 4.8)	181(20.1)	396(44.0)	212(23.6)	68( 7.6)	900(100.0)

(무응답=13)  $\chi^2=31.71$ , D.F.=4,  $p<.0000$ , Cramer's V=.19

4)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

〈표-5〉는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는 〈표-4〉에 제시된 바와같이 성별과 여가 불만족 이유 두 변인은 상호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즉 남녀에 따라 여가 불만족 이유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공간 부족"(36.5%)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일이나 학업에 마음이 쓰여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34.9%), "참여할 만한 적당한 여가활동이 없다"(11.1%), "비용이 없다"(8.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계적인 차이는 없으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시설·공간 부족을, 여학생은 여가활동 부재와 시간적, 정신적 여유없음을 남학생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표-5〉 여가 불만족 이유

구 분	시설·공간 부족	여가활동 부재	방법과 기술부족	비용부족	여가동반자 부재	여유없음	계
남학생	51(37.5)	12( 8.8)	6( 4.4)	13( 9.6)	11( 8.1)	43(31.6)	136(100.0)
여학생	61(35.7)	22(12.9)	4( 2.3)	12( 7.0)	8( 4.7)	64(37.4)	171(100.0)
계	112(36.5)	34(11.1)	10( 3.3)	25( 8.1)	19( 6.2)	107(34.9)	307(100.0)

$\chi^2=4.94$ , D.F.=5,  $p>.423$ , Cramer's V=.12

5) 건강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도

〈표-6〉은 성별에 따라 건강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6〉에 제시된 바와같이 건강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여가활동이 건강 유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매우 중요	중 요	보 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않음	계
남학생	161(35.2)	205(44.8)	78(17.0)	7( 1.5)	7( 1.5)	458(100.0)
여학생	93(21.5)	218(50.3)	113(26.1)	7( 1.6)	2( 0.5)	433(100.0)
계	254(28.5)	423(47.5)	191(21.4)	14( 1.6)	9( 1.0)	891(100.0)

(무응답=22)  $\chi^2= 27.12$ , D.F.=4,  $p<.0000$ , Cramer's V=.17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여가활동이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중요하다”(28.5%), “보통”(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건강유지에는 여가활동이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보통이라는 것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 6) 여가생활의 건전도 평가

〈표-7〉은 성별에 따라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의 건전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표-7〉에서 보면 남녀간에 여가생활의 건전도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의미있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 중학생들은 제주도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17.4%로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불건전하다”(17.4%), “건전하다”(13.5%)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의 24%가 불건전하다고 대답한 반면, 건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17.9%로 나타남으로써 제주도 학생들이 여가생활을 불건전하게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불건전하다고 보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7〉 여가생활의 건전도 평가

구 분	매우 건전	건전	보 통	불건전	매우 불건전	계
남학생	25( 5.9)	71(16.7)	227(53.4)	65(15.3)	37( 8.7)	425(100.0)
여학생	13( 2.9)	46(10.4)	272(61.7)	86(19.5)	24( 5.4)	441(100.0)
계	38( 4.4)	117(13.5)	497(57.6)	151(17.4)	61( 7.0)	866(100.0)

(무응답=47)  $\chi^2 = 18.59$ , D.F.=4,  $p < .0009$ , Cramer's V = .15

#### 7) 여가생활의 불건전 이유

〈표-8〉은 여가생활이 불건전한 이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8〉에 제시된 바와같이

〈표-8〉 여가활동의 불건전 이유

구 분	불건전 시설장소	공중 도덕심 결여	쾌락적 향락적 풍조	선도대책 미흡	기타	계
남학생	48(35.8)	13( 4.9)	33(24.6)	22(16.4)	18(13.4)	134(100.0)
여학생	44(33.8)	3( 2.3)	21(16.2)	46(35.4)	16(12.3)	130(100.0)
계	92(34.8)	16( 6.1)	54(20.5)	68(25.8)	34(12.9)	264(100.0)

$\chi^2 = 17.62$ , D.F.=4,  $p < .0015$ , Cramer's V = .26

여가생활의 불건전 이유는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전체적으로는 “불건전한 시설, 장소가 많기 때문”을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하였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불건전한 시설과 장소가 많다”,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풍조의 만연”, “공중도덕심 결여”

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육 및 선도대책의 미흡"을 더 중요한 이유로 평가하였다( $p < .01$ ).

### 8) 건전 여가의식 제고 방안

〈표-9〉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9〉에 제시된 바와같이 건전 여가의식 제고 방안은 남녀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p < .001$ ). 전체적으로는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시설을 늘린다"(48.6%)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올바른 여가생활에 대한 교육", "공공 스포츠 시설 확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건전한 여가시설 확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표-9〉 건전 여가의식 제고 방안

구 분	올바른 여가교육	건전 여가 시설 확충	공공 스포츠 시설 확충	여가 의식 수준 고양	기타	계
남학생	36( 8.7)	132(31.9)	221(53.4)	17( 4.1)	8( 1.9)	414(100.0)
여학생	24( 5.6)	279(64.6)	101(23.4)	19( 4.4)	9( 2.1)	432(100.0)
계	60( 7.1)	411(48.6)	322(38.1)	36( 4.3)	17( 2.0)	846(100.0)

(무응답=67)  $\chi^2 = 99.53$ , D.F. = 4,  $p < .0000$ , Cramer's V = .34

## 2. 여가활동

### 1) 평상시 참여 여가활동

〈표-10〉과 〈표-11〉은 평상시 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활동 유형과 세부 활동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10〉에서 보면, 제주도 중학생들이 평상시 여가활동은 "스포츠"라는 응답이 91.3%로 나타나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여가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녀 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여학생은 취미·창작분야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표-10〉 평상시 여가시간에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

구 분	스포츠	취미 창작	오락	계
남학생	430(94.7)	13( 2.9)	11( 2.4)	454(100.0)
여학생	382(87.8)	28( 6.4)	25( 5.7)	435(100.0)
계	812(91.3)	41( 4.6)	36( 4.0)	889(100.0)

(무응답=24)  $\chi^2 = 13.37$ , D.F. = 2,  $p < .0012$ , Cramer's V = .12

그 다음으로 세부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표-11〉이다. 이 분석에서는 전체 백분율이 1.5%이상인 활동들만을 개별적으로 포함시켰으며, 1.5%미



제주도 중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김승곤)

만인 경우는 기타 활동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농구"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18.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전거(싸이클) 타기"(10.9%), "축구"(10.2%), "배드민턴"(9.1%) "줄넘기"(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농구, 축구, 야구, 탁구, 태권도, 배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조깅, 산책, 배드민턴, 줄넘기, 자전거타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표-11〉 평상시 여가시간에 참여하는 세부 여가활동

여가활동	남학생	여학생	계
조깅	12( 2.8)	31( 7.6)	43( 5.1)
산책	8( 1.9)	36( 8.8)	44( 5.2)
탁구	10( 2.3)	2( 0.5)	12( 1.4)
태권도	12( 2.8)	2( 0.5)	14( 1.7)
배구	13( 3.0)	4( 1.0)	17( 1.7)
농구	143( 33.1)	14( 3.4)	157( 18.6)
배드민턴	12( 2.8)	65( 15.9)	77( 9.1)
축구	82( 19.0)	4( 1.0)	86( 10.2)
줄넘기	4( 0.9)	42( 10.2)	46( 5.5)
자전거(싸이클)	38( 8.8)	54( 13.2)	92( 10.9)
야구	13( 3.0)	1( 0.2)	14( 1.7)
기타	85( 19.7)	155( 37.8)	240( 28.5)
계	432(100.0)	410(100.0)	842(100.0)

(무응답=71)  $\chi^2 = 321.19$ , D.F. = 11,  $p < .0000$ , Cramer's V = .62

2) 장래의 희망여가 활동

〈표-12〉, 〈표-13〉은 장래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활동 유형별, 세부 활동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12〉에서 보면, 77.1%의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장래의 희망 여가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취미·창작활동은 18.1%, 오락은 4.8%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장래에 스포츠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어하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취미·창작 활동과 오락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표-12〉 장래의 희망 여가활동 유형

구 분	스포츠	취미 창작	오락	계
남학생	381(83.4)	56(12.3)	20( 4.4)	457(100.0)
여학생	309(70.5)	106(24.2)	23( 5.3)	438(100.0)
계	690(77.1)	162(18.1)	43( 4.8)	895(100.0)

(무응답=18)  $\chi^2 = 22.76$ , D.F. = 2,  $p < .0000$ , Cramer's V = .16

한편 <표-13>의 세부 활동별 장래의 희망 여가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구"가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축구, 태권도, 산책, 그림/조각, 배구, 사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배구, 농구, 축구, 야구, 음악감상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조깅, 태권도, 사진, 독서, 서예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01$ ).

<표-13> 장래의 희망 여가활동

구 분	남학생	여학생	계
조깅	6( 1.4)	12( 2.9)	18( 2.1)
산책	12( 2.7)	13( 3.2)	25( 3.0)
태권도	13( 3.0)	15( 3.7)	28( 3.3)
배구	13( 3.0)	4( 1.0)	17( 2.0)
농구	54( 12.4)	16( 3.9)	70( 8.3)
축구	55( 12.6)	4( 1.0)	59( 7.0)
자전거(싸이클)	9( 2.1)	7( 1.7)	16( 1.9)
야구	12( 2.7)	1( 0.2)	13( 1.5)
음악감상	8( 1.8)	3( 0.7)	11( 1.3)
사진	5( 1.1)	12( 2.9)	17( 2.0)
독서	3( 0.7)	11( 2.7)	14( 1.7)
그림/조각	9( 2.1)	9( 2.2)	18( 2.1)
서예	4( 0.9)	6( 1.5)	10( 1.2)
전자오락	6( 1.4)	7( 1.7)	13( 1.5)
기타	228( 52.2)	287( 70.5)	515( 61.0)
계	437(100.0)	407(100.0)	844(100.0)

(무응답=69)  $\chi^2 = 97.24$ , D.F. = 14,  $p < .0000$ , Cramer's V = .34

### 3) 여가시간

<표-14>와 <표-15>는 각각 평일의 여가시간과 주말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14>에서 보면, 평일의 1일 여가시간을 질문한 결과 "1-2시간"이 3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3시간"이 27.2%, "1시간 미만"이 26.5%으로 나타나 80%의 응답자가 3시간이내의 여가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4> 평일의 여가시간

구 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계
남학생	98(22.8)	144(33.6)	97(22.6)	35( 8.2)	55(12.8)	429( 51.5)
여학생	107(26.5)	110(27.2)	110(27.2)	36( 8.9)	41(10.1)	404( 48.5)
계	205(24.6)	254(30.5)	207(24.8)	71( 8.5)	96(11.5)	833(100.0)

(무응답=80)  $\chi^2 = 7.07$ , D.F. = 4,  $p > .132$ , Cramer's V = .09

〈표-15〉 주말의 여가시간(일요일 기준)

구 분	1시간 미만	1-3시간	3-5시간	5-7시간	9시간 이상	계
남학생	19( 5.3)	92(25.8)	105(29.5)	74(20.8)	66(18.5)	356( 54.6)
여학생	23( 7.8)	69(23.3)	95(32.1)	65(22.0)	44(14.9)	296( 45.4)
계	42( 6.4)	161(24.7)	191(21.4)	139(21.3)	110(16.9)	652(100.0)

(무응답=261)  $\chi^2 = 3.65$ , D.F.=4,  $p > .454$ , Cramer's V = .08

성별로 분석하여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가시간이 1시간미만, 2-3시간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1-2시간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통계적인 의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15〉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요일의 여가시간을 질문한 결과, "1-3시간"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시간(21.4%), 5-7시간(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자들도 16.9%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여가시설

#### 1) 최근 사용 여가시설

〈표-16〉, 〈표-17〉은 최근에 1년간을 통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여온 여가시설을 시설 유형과 세부시설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16〉에 의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한 시설은 스포츠 부문으로서 전체의 66.8%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33.2%는 각종 여가 교양시설로 나타났다. 성별의 분석결과를 보면, 두 변수가 상호 독립적이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유형

구 분	스포츠	교양	계
남학생	327(72.0)	127(28.0)	454(100.0)
여학생	264(61.3)	167(38.7)	431(100.0)
계	591(66.8)	294(33.2)	885(100.0)

(무응답=28)  $\chi^2 = 11.09$ , D.F.=1,  $p < .0009$ , Phi = .11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스포츠부문의 여가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양 여가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한편, 〈표-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부 여가 시설별로 이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운동장"(36.3%), "전자오락실"(11.3%), "기타"(10.7%), "도서관·독서실"(9.8%), "농구코트"(8.1%), "체육관"(5.5%), "문화관(연극·영화)"(4.9%)의 순으로 나타나 제주도 중학생들이 여가시설로서 운동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여학

생보다 운동장, 탁구장, 농구코트, 전자오락실을, 여학생은 수영장, 도서관·독서실, 각종 취미실, 산책로, 문화관을 남학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7〉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부 여가시설

구 분	남학생	여학생	계
체육관	30( 6.7)	18( 4.2)	48( 5.5)
운동장	170(37.7)	148(34.7)	318(36.3)
수영장	8( 1.8)	23( 5.4)	31( 3.5)
탁구장	17( 3.8)	4( 0.9)	21( 2.4)
농구코트	61(13.5)	10( 2.3)	71( 8.1)
각종도장	14( 3.1)	7( 1.6)	21( 2.4)
도서관·독서실	17( 3.8)	69(16.2)	86( 9.8)
취미실	3( 0.7)	13( 3.1)	16( 1.8)
전자오락실	89(19.7)	10( 2.3)	99(11.3)
산책로	2( 0.4)	17( 4.0)	19( 2.2)
자전거 도로	4( 0.9)	6( 1.4)	10( 1.1)
문화관(연극·영화)	2( 0.4)	41( 9.6)	43( 4.9)
기타	34( 7.5)	60(14.1)	94(10.7)
계	451(51.4)	426(48.6)	877(100.0)

(무응답=36)  $\chi^2 = 213.79$ , D.F. = 12,  $p < .0000$ , Cramer's V = .49

## 2) 부족 여가시설

〈표-18〉, 〈표-19〉는 평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가시설을 시설 유형별, 세부 시설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17〉에서 보면, 스포츠 부문 여가시설이 69.5%로 교양여가시설이 33.2%로 나타나 스포츠 관련 시설들의 매우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시설의 부족을 더 호소하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양여가시설의 부족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18〉 부족한 여가시설 유형

구 분	스포츠	교양	계
남학생	342(75.3)	112(24.7)	454( 51.1)
여학생	276(63.4)	159(36.6)	435( 48.9)
계	618(69.5)	294(33.2)	889(100.0)

(무응답=24)  $\chi^2 = 14.25$ , D.F. = 1,  $p < .0002$ , Phi = .13

한편, 〈표-18〉에 나타난 바와같이 세부시설별로 부족 여가시설을 분석해 보면, "농구코트"가 9.6%로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체육관"이 8.4%, "스키장"(7.9%), "수영장"(7.2%), "자전거도로"(5.4%), "문화관"(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체육관, 운동장, 탁구, 야구, 농구, 체력단련실, 전자오락실 등이 더 부족

제주도 중학생의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 연구(김승곤)

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수영장, 스키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각종 취미실, 문화관이 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19〉 부족한 세부 여가시설

시 설	남학생	여학생	계
체육관	46(10.2)	28( 6.6)	74( 8.4)
운동장	16( 3.5)	8( 1.9)	24( 2.7)
수영장	23( 5.1)	40( 9.4)	63( 7.2)
스키장	25( 5.5)	44(10.4)	67( 7.9)
테니스장	15( 3.3)	21( 5.0)	36( 4.1)
탁구장	12( 2.6)	6( 1.4)	18( 2.1)
야구장	31( 6.8)	7( 1.7)	38( 4.3)
농구코트	69(15.2)	15( 3.5)	84( 9.6)
각종도장	19( 4.2)	8( 1.9)	27( 3.1)
체력단련장	21( 4.6)	10( 2.4)	31( 3.5)
배드민턴장	11( 2.4)	16( 3.8)	27( 3.1)
롤러스케이트장	9( 2.0)	21( 5.0)	30( 3.4)
도서관·독서실	13( 2.9)	16( 3.8)	29( 3.3)
각종 취미실	7( 1.5)	18( 4.2)	25( 2.9)
전자오락실	12( 2.6)	3( 0.7)	15( 1.7)
박물관	12( 2.6)	7( 1.7)	19( 2.2)
산책로	10( 2.2)	17( 4.0)	27( 3.1)
자전거 도로	23( 5.1)	24( 5.7)	47( 5.4)
문화관(연극·영화)	14( 3.1)	31( 7.3)	45( 5.1)
컴퓨터실	10( 2.2)	13( 3.1)	23( 2.6)
기타	55(12.1)	71(16.7)	126( 14.4)
계	453(51.7)	424(48.3)	877(100.0)

(무응답=36)  $\chi^2 = 105.55$ , D.F.=20,  $p < .0000$ , Cramer's V = .35

3) 여가시설 사용할 때 불편한 점

〈표-20〉은 여가시설을 사용할 때 불편한 이유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표-20〉 여가시설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

구 분	먼거리	장소의 협소/복잡	사용료의 고가	편의시설의 불충분	사용시간 제한적	계
남학생	167(38.8)	82(19.1)	66(15.3)	79(18.4)	36( 8.4)	430( 51.5)
여학생	102(25.2)	73(18.0)	87(21.5)	97(24.4)	44(10.9)	405( 48.5)
계	269(32.2)	155(18.6)	153(18.3)	178(21.3)	80( 9.6)	835(100.0)

(무응답=78)  $\chi^2 = 21.43$ , D.F.=4,  $p < .0003$ , Cramer's V = .16

보면, "여가시설과의 거리가 멀다"가 32.2%로 가장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편의시설이 불충분하다"(21.3%), "장소가 협소하거나 복잡하다"(18.6%) "사용료, 입장료가

비싸다”(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분석하여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여가 시설과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더 높게 지적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용료, 입장료의 비쌌, 편의시설의 불충분, 사용 시간의 제한의 이유를 더 불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p < .001$ ).

#### 4.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

〈표-21〉은 성별에 따라서 주관적인 여가활동 경험을 구성하는 여가심취도, 여가통제력 및 여가자신감 하위요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21〉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가심취도, 여가통제력, 여가자신감 모든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가심취도, 여가통제력 및 여가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성별에 따른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의 차이

종속변인	성 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P																				
여가심취도	남학생	404	5.09	1.54	1, 833	34.12	.000																				
	여학생	431	5.74	1.65				여가통제력	남학생	437	5.73	1.55	1, 866	25.03	.000	여학생	431	6.26	1.53	여가자신감	남학생	438	3.75	1.09	1, 867	72.03	.000
여가통제력	남학생	437	5.73	1.55	1, 866	25.03	.000																				
	여학생	431	6.26	1.53				여가자신감	남학생	438	3.75	1.09	1, 867	72.03	.000	여학생	431	4.38	1.09								
여가자신감	남학생	438	3.75	1.09	1, 867	72.03	.000																				
	여학생	431	4.38	1.09																							

〈표-22〉는 여가 만족도에 따라서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을 구성하는 여가심취도, 여가통제력 및 여가자신감 요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22〉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가심취도는 여가만족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 825) = 11.99$ ,  $p < .000$ ). Duncan에 의하여 구체적인 평균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심취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통제력, 여가자신감도 여가만족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가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여가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불만인 학생보다 여가통제력과 여가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여가 만족도에 따른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의 차이

종속변인	만족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P	Duncan Test
여가심취도	만족	205	5.05	1.53	2, 825	11.99	.000	1)3)2
	보통	362	5.71	1.58				
	불만족	261	5.31	1.71				
여가조절력	만족	215	5.27	1.41	2, 857	34.41	.000	1)2=3
	보통	375	6.15	1.45				
	불만족	270	6.35	1.65				
여가자신감	만족	215	3.67	1.15	2, 858	18.01	.000	1)2=3
	보통	375	4.18	1.06				
	불만족	271	4.21	1.16				

〈표-23〉은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을 구성하는 여가심취도, 여가통제력 및 여가자신감 요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23〉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가심취도, 여가통제력은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가자신감은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858) = 4.32, p < .014$ ).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스포츠 참여 집단이 취미·창작집단이나 오락집단보다 여가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의 차이

종속변인	여가활동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F	P	Duncan Test
여가심취도	스포츠	634	5.38	1.64	2, 826	2.59	.075	n.s.
	취미·창작	153	5.49	1.57				
	오락	42	5.95	1.65				
여가조절력	스포츠	661	5.97	1.58	2, 858	1.48	.607	n.s.
	취미·창작	157	6.12	1.49				
	오락	43	6.00	1.53				
여가자신감	스포츠	663	3.99	1.16	2, 859	4.32	.014	1)2=3
	취미·창작	156	4.26	0.96				
	오락	43	4.30	1.17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와 주관적 여가경험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제주도의 중학생들의 여가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전망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초로하여 청소년 여가문화의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6개 중학교에서 다단계 군집표집한 남녀 학생 913명이었다(남학생 468명, 여학생 445명).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연구내용을 크게 5개영역, 28개 문항으로 선정하여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어낸 연구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가의식

첫째, 여가에 대한 정의는 전체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남학생은 예술 및 스포츠 활동 등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 여학생은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35%의 학생이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여가 만족도는 전체의 32%의 학생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는 시설과 공간부족이었으며, 학업 때문에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불만요인었다.

셋째, 여가활동이 건강유지에의 기여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가생활의 건전도에 대해서는 약 25%의 학생이 불건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불건전한 시설, 장소, 쾌락적·향락적 풍조 만연을 주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건전 여가의식 제고 방안으로는 건전한 여가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여가참여 활동

첫째, 평상시 여가시간에 참여하는 활동은 거의 스포츠 활동이며, 농구, 자전거 타기, 축구, 배드민턴 등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들였다. 장래의 희망 여가활동도 스포츠 부문이 77%로서 가장 높았으며, 농구, 축구, 태권도, 산책 등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평일의 여가시간은 1-2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주말의 여가시간도 1-3시간이 가장 많았다.

## 3. 여가시설

첫째,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한 여가시설로는 운동장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자오락실, 도서관, 농구코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족여가 시설로는 농구코트, 체육관, 스키장, 수영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은 여가시설과의 거리가 멀다, 편의시설 부족, 장소의 협소함을 들었다.

## 4. 주관적 여가활동 경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가심취도, 여가통제력 및 여가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심취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여가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불만인 학생보다 여가통제력과 여가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여 집단이 취미·창작집단이나 오락집단보다 여가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전한 여가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가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전 여가의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국민계도 및 홍보 활동의 강화와 더불어 여가에 대한 조기교육이나 기존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이나 체육시간에 약간의 여가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시설부족, 교육내용의 부실, 전문지도자의 부재 등으로 올바른 여가관의 정립이나 합리적인 여가생활능력 배양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식적인 교과과정에 여가시간을 정식으로 설정하여(독립교과의 신설이나 체육교과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교사의 확보와 함께 청소년들의 소양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여가시설 및 공간 확충과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체육, 스포츠 시설을 중심으로 한 여가



시설 및 공간을 확충이 없이는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공간 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이 하나인 접근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간 확보 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들은 여가공간, 시설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단체활동과 대화를 위한 수련장이나 자연학습과 신체단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단위 야영장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 도서관 시설의 확충은 물론 공공, 시립도서관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건전한 여가관을 정착시키고 청소년의 여가욕구와 실현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스포츠, 문화 교양시설 등의 여가시설 확충과 건전한 여가교육 및 계몽활동을 통하여 여가 일탈화 현상이 팽배해 가는 것을 억제하고 그 근원을 고갈시켜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창모(1991). 체육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승곤(1992). 청소년의 여가환경 실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35집(인문사회과학편), 513-533.
- 김용준(1990). 상황변인이 주관적 여가경험에 미치는 영향.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체육부(1988). 국민 여가활동 참여 실태 조사. 체육부.
- 한국관광공사(1985). 國民餘暇生活의 實態分析과 對策.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서울.
- 홍석표(1991). 여가활동유형과 여가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Harper, W.(1981). The experience of leisure. *Leisure Sciences*, 4(2), 113-126.
- Iso-Ahola, S.E.(1976). Basic dimension of definition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1), 28-39.
- Iso-Ahola, S.E.(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Iowa, W.M. C. Brown Company.